

vol. 132

2025년 겨울호

골롬반선교

통권 132호



“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루카 4.4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 마음을 여는 글 |

희망과 감사의 때



권세오 곤잘로 신부·한국지부장

2025년 겨울호

골롬반선교 VOL.132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3 마음을 여는 글 | 권세오
희망과 감사의 때

골롬반 초대석 | 안드레이 파스 총장

04 함께 걷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생물 다양성 | 노아곰

08 복 받으세요

10 평신도선교사 |
이경자 희망 품은 동행

12 손선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희망의 삶

14 한국 이야기 | 남승원
화해와 평화의 순례를 다녀와서

16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양창우 신부 편
예, 여기 있습니다!

20 순교자 이야기 | 엠마 오브라이언
75년 만에 고향의 한 조각과 안식하다

22 피지 이야기 | 정익균
우리는 모두 선교사

24 파키스탄 이야기 | 김진욱
바라 딴 무바릭 호!

26 후원회 28 골롬반 소식

표지: (왼쪽부터) 서품 회년을 맞은 오기백 다니엘 신부(50주년), 안광훈 로벨도 신부(60주년), 양창우 요셉 신부(25주년)가 성 골롬반 축일에 감사미사를 봉헌했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이 맘때가 되면 자연스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 시어 우리의 기쁨과 어려움 모두를 같이 나누시고 이 해해 주신 하느님께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골롬반회는 바로 이 희망,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의 희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선순위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있었으며, 어둠이 좀처럼 걷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언제나 그 답은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전쟁과 민족 갈등 때문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려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으며, 그 대가로 비참과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타국으로 내몰지만, 그 꿈은 좌절되기 일쑤입니다.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습니다. 고통받는 당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힘이 되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것은 인류만이 아닙니다.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마저 무분별한 개발로 착취당한 채 공동의 집인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해안선 소멸이 가속화하고, 생명을 지탱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골롬반회는 이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절박한 부르심을 들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골롬반회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키도록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에 헌신한 지 25년이 된 양창우 요셉 신부님, 서품 50주년을 맞은 오기백 다니엘 신부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데 60년을 바쳐 온 안광훈 로벨도 신부님께 축하의 마음 전합니다. 25년 동안 필리핀, 아일랜드, 페루, 미얀마 등에서 선교회와 함께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경자 크리스티나, 손선영 카타리나 평신도선교사님께도 감사합니다. 평신도의 관점에서 두 선교사가 걸어온 길은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희망의 표지입니다. ✠

함께 걷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 방한한 안드레이 파스 총장 신부 -

인터뷰·오기백 다니엘 신부 / 정리 편집실

본회 총장 안드레이 파스 신부가 한국지부 첫 공식 방문차 10월 18일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지부 회의, 각 지역 골롬반 회원 방문,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만남, 후원회원 미사 등으로 짙 찬 보름을 보냈습니다.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본지 인터뷰에 응한 총장 신부를 오기백 다니엘 신부가 만났습니다.

안드레이 파스 신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교회를 더 깊이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후원자들과 각 지역 교회와의 관계가 매우 끈끈한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대교구와 제주



한국지부 서울본부 정원의 골롬반 성인상 앞에 선 안드레이 파스 총장 신부



안드레이 파스 신부는 필리핀에서 활동할 때 작업치료를 통해 장애인들을 도왔다.



리마 총회에서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으로 그룹나눔을 하는 모습. 국적, 연령, 성별, 신원이 다른 이들이 동등하게 대화하며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이다.

교구 주교님들을 찾아뵈었을 때,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매우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들과 우리 회 사이에 맺어진 깊은 유대감 또한 크게 와닿았습니다. 삼척을 방문하여 그 지역 공동체와 연대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던 경험도 좋았습니다. 탈석탄을 위하여 활동하는 몇몇 주민과 함께 걸었는데, 길에서 한 아주머니께서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환대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중국, 필리핀에서 활동하셨고, 중간에 공부하러 미국에 가셨지요?

미국 오마하에 있는 크레이튼 대학교에서 작업치료 박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중국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작업치료사 자격증이 중국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사들을 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북경의 한 재활회사에 채용돼 외국인 전문가 채용 허가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비자 서류를 처리하려고 필리핀에 간 사이 국경이 폐쇄되었고, 발이 묶인 저는 필리핀에 있어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페루 리마에서 본회 세계 총회(이하 리마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유닛(지부보다 작은 선교단위) 대표로 참석하셨다가 총장으로 뽑히셨어요. 우리 회 역사상

첫 비백인 총장 선출이었고, 총본부 참사단에 아일랜드인이 포함되지 않은 일도 처음입니다. 리마 총회는 여러모로 큰 변화, 어쩌면 지각변동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총회에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총회 참가자(각 지부와 선교 유닛 대표단) 절반은 연장자였고, 절반은 더 젊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총회와는 역동성이 달랐죠. 한 달가량 긴 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모두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서로 경청하면서 골롬반회의의 현안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회 내내 변화와 쇄신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아마도 연배가 높은 회원들과 젊은 회원들 사이 간극을 메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께서 한국 방문 목적으로 '경청'을 첫째로 꼽으셨는데요. 시노달리타스적 삶을 선택한 골롬반회로서 경청은 더욱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짚어주신다면요.

모두가 '경청 받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타인을 듣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표현에만 익숙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귀 기울여 주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들음'이 사라지곤 하지요. 골롬반회는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 걸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정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지부 회원들을 잘 알

지는 못합니다. 이분들과 한국지부를 더 알아가려면
들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이야기, 경험, 고민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형제로서 여기에 왔고, 듣기 위하여 왔습
니다.

**앞서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언급하셨습니다. 경청이 기본
이 되는 대화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소한 사안은 토론으로 처리하지만,
주요 안건은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사용하는데, 모두
가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는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모두가 경청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대화
는 먼저, 성찰을 하며 자기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언 시간과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을 동등하게 보장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해 갈 수 있
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지부 회의에서 권태문 신부
님이 성령 안에서 대화하며 얻는 '공동의 지혜'라는 말
을 하셨습니다. 네,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우리의 나눌
에서 드러난 공통된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실
제로 그 공통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화 한 번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질문을 두고 여러 번
대화를 이어가며 성찰하고, 또 그 과정을 바탕으로 마
침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마 총회에서 두 가지 선교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와 회복', '이주민·난민과 동행'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골롬반외방선교회로서, 우
리가 지닌 고유한 카리스마인 초문화성 측면에서 이 선교
과제에 우리 회가 기여할 바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총회 문헌에는 “이 선교 우선 과제는 종교 간 대화
의 맥락에서 실행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전통과 함께 일하는 우리
회의 고유함을 나타냅니다. 두 우선순위는 이미 많은
골롬반회원이 오랜 세월 해오던 일입니다. 우리의 선
교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총회는 이 우선
과제에 더 집중하여 우리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총회가 두 선교 과제를 우선순위로 정한 이유는 오늘
날 세계가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
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에서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회칙이 부각한 문제에 응답하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환경을 돌보는 일,
기후 위기·전쟁·각종 재난과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한국의 후원자, 협력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이 필요
에 응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조림을 진행하는 등 골롬반회는
생물 다양성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민·이주민이 겪는 불확실성, 불안정과 관련해서 질문합
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전 총장 최 수산나 수녀
님이 미얀마와 중국 비자 발급의 불확실성에 관해 그것을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차원의 '참여'로 바라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비자와 거주권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겪으면서 우리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주민·
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로요.**

동의합니다. 저도 한국에 오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
러 필리핀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비자가 계속 거
절되어 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저뿐 아니라 많은 선교
사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주민과 난
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마음으로 이들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선교회 수는 매우 적고 규모도 작습니다. 지역
교회가 거의 모든 곳에 설립된 상황에서 오늘날 선교회가
수행할 특별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3월에 밀라노에서 열린 사도생활단 회의에서 이 주
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수도회와 어떻게 다
른가 하는 논의였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사도생활
단인 우리 같은 선교회는 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Ad
gentes)'와 '밖으로(Ad extra)'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며, 자기 나라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을 본질적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해
외 복음화를 위해 출신지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선
교지의 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떠남'과 '나아감'의 영성, 문화를 초월한 선교적 증거
야말로 우리가 교회에 이바지하는 고유하고도 지속적
인 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열린 마음을 지닌 한국의 젊은이들에
게 이러한 선교로 초대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로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호주 골롬반회로
보냈습니다. 영상에서 제 성소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추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할 예정). 10대



기후 위기, 전쟁, 정치, 경제 등 여러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어 타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가난한 이 중에 가장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으로 이들을 동반한다.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냥 분당 청소년 모임에 나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변화
가 일어났죠. 기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나 자신
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우리는 모이고
함께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닌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
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는 자기의 여정에서, 열
린 마음과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
누려는 용기를 내시라고요. 선교는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
문입니다. 특별히 교차 문화적인 골롬반회의 선교는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익숙함 너머로 지평을 넓혀줍
니다. 또 세계의 다른 다양한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
게 합니다. 도전적이며 동시에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느님의 선교 사업에 얼
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후원자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영향력을 직
접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기
도는 선교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우리가 봉사하는 선
교지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교의 일원이자 우리 여정
의 동반자입니다.

기쁨 넘치는 성탄과 평화, 희망, 번영으로 가득한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복 받으세요

노아곱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1963년에 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왔다. 광주 계림동, 흑산도, 노안, 목포 산정동·대성동, 사북, 서귀포, 인천 가정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한국지부 후원회 초창기부터 10년간 선교 홍보를 맡았으며, 이후 칠레에서 한인 교포사목을 하고 돌아왔다. 전남 장성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병원사목과 이주민사목 등을 하였고, 현재는 제주 골롬반 사제관과 장성을 오가며 후원회원과 이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사제서품식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기억에 남아있지만, 특별히 또렷하게 새겨진 장면이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제 손에 도유하실 때 “그대가 축복하는 모든 것이 복되어지기를” 하시며, 축복하는 특별한 권한을 엄숙히 부여하시던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축복은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피정 중에 피정 지도자는 제게 “버스, 기차, 거리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 힘을 받았으니, 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축복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은 이들이 가장 많이 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축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복’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조부모로부터 아이들까지 인생에서 모든 경사와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축복’이 따릅니다. 한복 입은 아기들이 ‘복주머니’를 걸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보는데, 매우 의미 있는 풍습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오복(五福)이라 하여 장수, 부, 건강, 덕을 사랑함, 평안한 죽음을 소망합니다. 여기에 더해 충실한 배우자, 효자, 진, 선, 미도 복으로 여깁니다.

노아곱 신부가
제주 사제관 마당에
심고 가꾼 꽃 사이
노아곱 신부도 활짝 피었다.

이제 이 글의 핵심인 ‘자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풍성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누리도록 내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늦게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두 프란치스코(성 프란치스코와 교황 프란치스코)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전까지 말입니다.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느님뿐”이라고 시인 조이스 킬머가 썼듯이 모든 자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무수히 채운 물고기, 새, 벌을 그 누가 생각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 숲, 산, 빙하, 비와 바람이 우리 곁에 당연히 있어서 우리는 거의 이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며 삽니다.

저 또한, 제주 집 마당에서 복을 누리며 삽니다. 마음껏 식물을 심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다듬거나 아예 그냥 두기도 하며, 희귀한 씨앗을 모으고, 제가 기른 무화과를 즐기면서 대체로 주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일을 합니다. 한 가지, 가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견디는 일이 있다면, 제가 심은 화분이나 싹 틔운 어린 모종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짓는 멍한 표정을 볼 때입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곧 이겨 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그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도 교황이 관심을 두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계속 통조림 과일과 비닐로 포장된 상추를 사서 먹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 ✠



장성 시골집에 살 때
마당에서 직접 꿀벌을 쳤다.



제주 용두암 골롬반 사제관 뜰의 꽃과 나무는
노아곱 신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희망 품은 동행

이경자 크리스티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0년 필리핀에 파견되어 11년간 선교한 후, 한국지부의 평신도 선교사 코디네이터를 하였다. 2017년에 아일랜드로 발령받고 이주민, 난민 사목을 하였으며, 2021년부터 한국지부에서 일하며 이주민, 난민 사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 방 두 칸짜리 월세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신청자 한 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위피(가명)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방황하다가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성격, 밝은 얼굴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위피는 낯선 타국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찾아온 한국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단속을 피해 가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위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위피의 삶은 마치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의 회복을 기다리는 순례자처럼, 자유와 회복을 향한 간절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난민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명동성당을 가보고 싶다는 이주민들과 함께 갔다가 우연히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필자가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여권과 '취업 불가' 도장이 찍힌 출국 기한 유예 허가 통지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피가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류 허가 연장 신청은 제때 했는지 궁금해하던 중 연락이 왔습니다. 전주에 있는 이민국에 무비자로 잡혀 곧 화성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본국으로 추방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며칠 후 화성에 있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 벽 너머, 전화기를 통해 대화하며 애써 관잖은 척 웃는 위피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체류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그녀가 답답했고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도 공장에 결근했다는 이유로 서울행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마련하지 못한 위피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며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었던 걸까?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위피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선교사로 살면서 위피의 경우처럼 무력함을 느낀 때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 순간도 많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며 동반했던 난민들이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안정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얼굴에 비친 기쁨과 평안은 저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다가가 만나고,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고마워하며 제 작은 관심과 위로가 자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위: 필자는 생계를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난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사진 속 난민이 일하는 곳에 가서 종종 일손을 거들곤 한다.
아래: 부활 때 이주민 자녀들과 달걀 꾸미를 했을 때 *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활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ですよ.

올해 선교사로 살아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여정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값진 보석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허락하시어 함께해 주셨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위로와 보상을 함께 주셨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온 사람들과 난민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희망을 품고,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감사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저는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빛이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희망의 삶

손선영 카타리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0년에 필리핀으로 파견돼 8년 동안 일했고, 두 번째 선교지인 남미 페루로 가서 리마의 변두리 지역에서 살았다. 2015년 미얀마로 발령받아 바모 지역에서 청소년사목을 하다가 3년간 홍콩에서 일하고 2023년에 돌아가 미얀마 미치나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지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 총본부 평신도선교사 참사를 했다.

2000년 10월 29일 한국지부에 서, 다음 날 필리핀으로 첫 파견을 앞둔 평신도선교사 네 명을 위한 파견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대 앞에 무릎 꿇은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던 골롬반 가족들 옆에 신자가 아니었던 제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올려다보지 않아도 제 머리에 떨어지는 두 손을 얹으신 분이 어머니인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직장인이 된 나이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게다가 선교사가 되어 다른 나라로 떠나는 딸에게 몹시도 서운하셨던 어머니는, 2년 뒤 제가 선교하던 필리핀 올롱가포에 다녀가신 후에 까리타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딸을 보러 오셨을 때, 힘겨운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선교지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들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딸이 보기 좋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삶이란 말로써가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미얀마 청소년들과 함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짐을 제 삶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여정을 걸어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필리핀, 한국, 페루, 홍콩, 지금은 미얀마에서 평신도선교사로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총과 감사로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언젠가 피정 중에 마당을 거니는데, 시멘트블록 틈새에 피어난 작은 풀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비 내린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짙하게

내리쬐는데도 잘 버티어 서 있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꽃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풀꽃이 자라나도록 틈새를 내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준 시멘트블록 덕이 아닐까?' 여러모로 부족했던 제가 평신도선교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게 지지대가 되어준 골롬반회 가족들과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반겨주고 따뜻하게 품어준 선교지 분들,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기쁘게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선교지였던 필리핀에서, 다양한 국적의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 '문화의 다름'이 축복이 됨을 배웠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문화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파견된 나라의 문화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교지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기쁨도 배웠습니다. 우리 삶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계신 하느님을 만났고, 제가 원하는 방향과 때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체험하였습니다. 종종 제 계획과 다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제 여정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옳다고 믿는 신뢰와 열린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5년 전, 선교사로 처음 파견되었을 때 어머니의 축복을 받았다.

미얀마의 바모 교구에서 청소년사목을 하던 중 중앙 평신도선교사 참사로 선출되어 홍콩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다시 미얀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푸르른 카친 땅을 내려다보며 '다시 돌아왔구나!' 하며 무척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바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 쿠데타가 시작된 후 심각한 전투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신 북쪽 미치나 교구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나에서 바모에서 함께 일했던 청년들과 만나게 되는데 반가움에 앞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 전으로 인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을 떠나 미치나로 피난 온 것이고, 점점 이곳으로 피난 오는 이들 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희년을 보내며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내전 때문에 공포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청합니다. 여러분도 이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자가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미치나에 있는 피난민 캠프를 찾아가 난민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있다.



화해와 평화의 순례를 다녀와서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2년에 사제품을 받았고 페루에서 선교했다. 유학 후 2010년 한국 지부로 발령을 받고 신학원장, 성소국장, 부지부장, 선교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평화사목국을 맡고 있다.



남장민화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왼쪽부터) 곤솔라따회 한경호 신부, 필자, 순교복자회 한창호 신부와 압록강변에서.

골롬반회가 속한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에도 민족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이하 남장민화위). 정의평화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2015년 남장민화위로 시작되고, 올해로 10주년이 된 셈입니다. 이를 기념해 9월 4일~7일 북한-중국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백두 평화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남장민화위는 9개 수도회/선교회 소속 15명 사제

와 수도자로 구성되어 있고, 저도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현재이지만, 꾸준히 남장민화위 차원과 또 각자의 사목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해·평화 기도모임, 월레미사, 안성하나원 방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위한 장학 사목과 멘토링 사목,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 운영 등입니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띠앗머리’라고 남북한 청년들을 형, 누나, 동생들로 맺어주고 동아리(풋살, 독서, 유아 돌봄, 성경공부 등등)를 함께 하며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장민화위는 ‘띠앗머리’ 청년들을 이번 <백두 평화 순례>에 초대하였습니다.

기존에 계획한 경로는 북한-중국 국경 지역의 동북쪽(연길공항)에서 시작해 서북쪽(심양공항)에서 마치는 길로 김대건 신부님의 중국 이동 지점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연길공항이 활주로 공사로 전면 통제되어 심양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례길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중국 입국 때는 북한민 청년 한 명이 예전에 중국 체류 당시 지문 검색을 당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항에 억류되었다가 한국에 되돌아가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분 가까이 잡혀있는 동안 그 청년은 북한으로 송환될까 봐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와 순례를 함께 가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안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심양-만주-집안, 둘째 날에 백두산, 셋째 날은 압록강-단둥-신의주, 넷째 날에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순례를 함께한 곤솔라따선교수도회 한경호 신부의 묵상과 기도 일부를 나누며 여러분과 이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셋째 날: 압록강의 밤- 분단의 강을 건너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묵상과 나눔 질문

- 압록강: 국경을 가르며 흐르는 분단의 상징. 그러나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연결과 희망을 보여준다.
- 평화는 경계를 허물고 하나됨을 지향한다. 경계선/국경선을 만남으로써 중화시키기
 - ① 내 안의 ‘압록강’ 같은 경계선은 무엇인가?
 - ② 나는 어떻게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가?

다음은 함께 갔던 띠앗머리 청년들의 순례 후기 일부입니다.

“압록강 주변에서 어린아이와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청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 청년이나 신의주 공사장에서 일하

는 청년들처럼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발전이 여전히 더딘듯하여 마음 한편이 슬펐습니다. 혼자였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곳을 동생과 띠앗머리와 함께 다녀올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 사람들의 ‘다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탄탄한 마음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날씨, 컨디션과 상관없이 모든 날이 좋았던 건 많은 분의 노고와 모두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이 선이 아닌 면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흐르는 압록강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낙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영 갈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날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가이드분이 여러 번 강조한 단어는 ‘편견’이었습니다. 편견이 차별이 아닌 다정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띠앗머리 담당 신부님 말씀대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 북한민 청년들은 자신이 건너온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고, 언젠가 고향을 방문하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한 청년들은 국경이 단순히 선으로 분리된 곳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과 북한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순례에 참여한 모든 이가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순례에 함께한 청년들은 안개 걷힌 맑은 백두산 천지를 평화의 희망과 함께 가슴에 담았다.



예, 여기 있습니다

- 은경축 맞은 양창우 신부 -



인터뷰·권은정 루이제 작가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한겨레신문 해외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윤공회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 등 인터뷰, 구술 책을 작업했고, 신문과 잡지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땅에 맨 처음 10명의 골롬반 선교사가 도착해서 간 곳이 대구였다. 그들은 대구대목구 안세화 드망즈 주교의 환대를 받으며 수개월 동안 거기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다음,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은 전라남도

로 향했다. 그 뒤 한동안 골롬반회와 대구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다. 양창우 요셉 신부가 대구 출신 첫 골롬반 사제가 되기까지는 그랬다.

양창우 신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사목했다.



신학생 시절의 양창우 신부다. 필자 오른쪽에 남승원 신부와 강승원 신부가 있다. 뒷줄에는 이들의 양성을 맡았던故 미리암 수녀, 장 레이문도 신부가 있다.

청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라며 신앙을 키운 양창우 신부가 서품 25주년을 맞이했다. 집안의 천주교 내력은 외조부로부터 시작된다. 외조부는 인천교구 초대 교구장 나길모 주교가 청주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실 때부터 협조자로서 일을 맡아 나 주교 곁을 오랫동안 지킨 분이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나 주교님 이야기를 항상 들으며 컸어요. 크면서 그런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확실히 마음을 다지고 성소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아프리카 같은 먼 데로 가고 싶었다. 그런 소망이 소문이 났는지 어느 날 친구가 성당에서 골롬반 선교회 포스터를 봤다고 소개해 주었다.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골롬반에 연결된 순간이었다. 그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필리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꿈이긴 했지만, 사실 선교사의 길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저를 선교사로 원하신다면 어떤 사인(sign)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드렸어요.”

사제서품은 출신 본당이 있는 대구에서 받았다. 서

품식 날 대구대교구 대건신학교 유스티노 강당에 모인 대구 지역 신자들은 오랜만에 골롬반회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사제가 되고 첫 발령지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익숙한 곳이었다. 신학 공부도 하였고 신학생 시절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곳이다. 선교사제로서 필리핀에서 보낸 3년은 양 신부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었다.

“평생 줘야 할 세례를 그때 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이에게 세례성사를 주었어요. 특히 청소년사목을 하면서 젊은 신자들과 친교를 쌓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청년 중에 두 명이 사제가 되었어요.”

그는 사뭇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필리핀 사목은 그에게 청년사목, 특히 피정 프로그램을 통한 사목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알게 해주었다. 후에 양 신부는 캐나다의 피정센터에 가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필리핀 활동에 한창이던 중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명 서약을 지키는 선교사들이지만 정말이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선교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발령받고 그는 성소국장 겸 신학원장을 하며 선교사제가 되길 희망하는 후배들을 초대하고, 양성하고, 서품을 받도록 동반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골롬반 후원을 맡아 더 많은 이를 선교에 초대하도록 동행했다. 현재는 한국지부의 부지부장으로 두 번째 연임하여 본회에 봉사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를 한국으로 부르신 까닭을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며 맺은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양 신부는 성령기도회를 이끄는 사제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기도회로 신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에게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양 신부는 우연한 기회에 성령기도회를 접하게 되었다. 성소국 일을 하던 중에 故 주 예레미야 신부(골롬반회, 한국 선교 1955-2021)가 그를 초대해 주신 것이다.

“처음은 수원에 있는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2박 3일간 기도회에 가게 된 것

이었어요. 사흘간 내내 기도회에 오신 분들에게 고백성사를 주었는데요. 그때 저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양 신부는 고해성사를 통해 상처와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그때 어떤 발견,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성령기도회가 중요한 선교 활동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선교사로서의 쓰임을 발견하게 되어서 몹시 기뻐지요. 우리 골롬반회 원칙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회를 통해 그분들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양 신부에게 격려를 해주신 분이 故 주 예레미야 신부와 故 게 올리버 신부(골롬반회, 한국 선교 1966-2000)라고 한다. 양 신부는 자신이 선배 신부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한다.

광주 후원회원 피정 지도를 했을 때



① 2000년 사제서품식 후 첫 미사 때 ② 후원회원을 위한 영성 강의를 하는 모습 ③ 신학원장 시절, 조성근 신부가 신학생일 때 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종근 신부다.



스스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며 양 신부는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쉽게 극복하는 편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기도회 모임이 단절되었을 때도 그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다.

“후원회 미사와 성령기도회를 유튜브로 중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또한 그분들이 골롬반과 연대를 맺게 되어서 보람도 있습니다.”

요즘 양 신부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하고 있는 찬양미사의 키워드는 치유와 위로다.

“이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고 싶어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에게는 또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는 또 지금 제주에서 성 이시돌 피정의 집을 맡고

있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바쁘게 지내는 그가 가장 주력하는 피정 프로그램은 “자연 순례를 통한 주님 만나기”이다. 故 임피제 신부와 이어돈 신부가 일구어 놓은 제주 이시돌 목장이라는 바탕 위에서 생태영성이 꽃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

양 신부는 은경축일인 6월 29일을 메주고리에서 맞이했다. 열흘 동안 가진 신자들과의 성지순례였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시다. 그곳에서 미사 드리고 전 세계에서 방문한 신자들에게 고백성사를 주면서 제가 옛날에 가졌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는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선교사이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 갑니다.”

또 다른 25주년을 출발하는 양 신부의 발걸음에는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

75년 만에 고향의 한 조각과 안식하다

— 하느님의 종 고 안토니오 신부 후손의 한국 방문기 —

엠마 오브라이언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으로 하느님의 종 고 안토니오 신부의 조카 손녀이다. 현재 영화 제작자로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으며, 올해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순례한 기록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아일랜드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 제 할아버지와 그분 형제자매들은 형제인 앤서니 콜리어(이하 앤서니)의 무덤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아일랜드에서 시신 없이 앤서니를 위한 장례미사를 드렸습니다. 그해 6월 27일 한국전쟁 발발 이틀 만에 앤서니는 북한군에게 총살당하였습니다. 그가 숨진 춘천까지는 가족들에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먼 길이었습니다.

앤서니의 조카인 제 어머니 레이첼 콜리어는 앤서니의 가족 농장에 있는 흙을 한국, 삼촌 무덤에 뿌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골롬반회 전쟁 순교

필자 어머니 레이첼 씨와 이모 제럴딘 씨가故 김경호 가브리엘 씨 동생인 김영자 수산나 씨를 만났다. 김영자 씨는 앤서니 신부에 대한 기억과 오빠에게서 들은 순교 당시 상황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 춘천 낙원문화공원에 있는 앤서니 신부 순교터 표지석이다. 5월에 한국에 온 필자가 그 위에 꽃을 올렸다.

자인 하느님의 종 7위 가족들이 이 잊을 수 없는 여정에 초대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기 위하여 저와 어머니, 이모 제럴딘, 토마스 쿠삭 신부의 가족, 프랜시스 캐너벤 신부의 가족도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는 서울-광주-목포-대전-춘천-강릉-홍천-삼척까지 순교자들이 살았고 일했으며 죽음을 당하고, 묻힌 곳을 순례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광주대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등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는 데 기울인 노력은 우리 가족들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특별히, 앤서니가 초대 주임으로 사목하셨던 춘천교구 소양로 본당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신자들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앤서니는 그곳에서 “고 안토니오 신부님”이라고 불렸고, 아일랜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도 교회 곳곳에 앤서니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그의 삶이 잘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앤서니의 무덤은 춘천교구 주교좌죽림동성당 뒤편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가 바쳐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앤서니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춘천에서 앤서니가 순교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지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가족들은 한국 교회가 일곱 분의 골롬반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일랜드로 돌아와 이 용감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일곱을 기억하며 (Remembering the Seven)』라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왼쪽부터 제럴딘, 신정호 모세 신부(당시 소양로성당 주임), 레이첼, 필자, 춘천교구 이재현 프란치스코 신부다. 콜리어 가족은 앤서니 신부가 받았고 베풀었던 ‘사랑’을 뜻하는 아일랜드어 ‘그라(Grá)’가 새겨진 명판을 소양로성당에 선물하였다.

| 앤서니 콜리어 Anthony Collier 고 안토니오 신부 |

1913년 6월 20일 아일랜드 클로거헤드 출생
1938년 12월 21일 사제서품
1939년 한국 도착. 강릉 임당동 본당, 횡성 본당에서 사목하던 중 일제에 의해 가택 연금
1950년 1월 소양로 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
1950년 6월 27일 북한군 총에 맞아 순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에 속한 골롬반회 선교사이다. 본문에서는 80위 일람표의 표기를 따랐으며, 순교자의 한국 이름은 고 안토니오다. 전쟁 발발 이틀 만에 순교하면서 6·25 전쟁 첫 외국인 순교자가 됐다.

앤서니 콜리어 신부는 본당 복사 김경호 가브리엘 씨와 지목구장을 만나러 죽림동성당으로 가던 중 춘천 중앙로터리 부근에서 북한군에게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묶인 채 끌려가다가 공치천변에서 북한군이 쓴 총에 맞았는데, 앤서니 콜리어 신부는 김경호 씨를 살리기 위해 그를 끌어안고 쓰러졌다. 훗날 김경호 씨는 앤서니 콜리어 신부가 순교한 당시를 교회에 증언하였다.

이번 한국 순례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은 춘천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님과 광주대교구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분이 보여 주신 따뜻한 마음과 친절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앤서니의 고향에서 가져온 흙 한 줌과 조개껍데기를 묘지 위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고향의 작은 조각이 앤서니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앤서니 신부의 조카 레이첼 씨가 삼촌의 비석 위에 손을 얹고 있다. 죽림동주교좌성당 순교자 묘지.

우리는 모두 선교사

정의균 가롤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인천 출신이며, 2014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미얀마에서 활동한 후, 2017년에 남태평양 피지 공화국으로 파견돼 인도계 피지인 사목을 했다. 현재는 피지 북쪽 바누아 레부 섬 람바사시에 있는 성가족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고 있다. 본회 오세아니아지부 부지부장이기도 하다.

2005년 미국 주교회의는 교회의 사명 안에서 평신도의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직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님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Co-Workers in the Vineyard of the Lord)』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한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이미 예견한, 매우 중요한 사목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은 미국 내 평신도 교회 사목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교구 주교들과 모든 관련 책임자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수의 남녀 평신도들이 교회의 다양한 사목 직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가운데 다수는 상당한 수준의 준비, 양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목 직무들은 지역 교회에서 공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교회 인준이 필요하며, 평신도에게 특정 사목 분야에서 지도적 책임을 맡깁니다. 이를 통해 일부 평신도들은 주교, 사제, 부제의 사목 직무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로 초대됩니다.”

이 짧은 서문 안에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담겨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목 동반자로서 주님의 포도밭을 가꾸어 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 '시노달리타스'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른 이의 고통과 기쁨에 귀 기울이며, 함께 식별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의 영성'을 의

성체 거동 행렬을 함께 준비하는 필자와 본당 봉사자들



필자가 지난 11월, 본회 후원 홍보 활동을 하며, 호주 시드니 브로큰베이 교구 노만허스트 한인천주교회를 찾았을 때다. 후원회원들이 한국지부에서 보낸 골롬반 선교잡지를 손에 들고 있다.



필자가 구역 방문을 갔을 때

미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경청하는 교회”, “세상 속 교회”를 말씀하시며, 모든 신앙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제가 사목하는 성가족 성당에서도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을 맞아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각 구역을 나누어서, 사목위원들은 쉬는 교우들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와 위로와 따뜻한 관심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공소 구역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계를 보니 새벽 두 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신자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신앙의 기쁨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목회 장님이 차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참 충만합니다.” ‘아! 바로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 육체는 지치더라도 주님을 위해 나누고 섬길 때 느끼는 그 영적 기쁨, 그것이 이야말로 진정한 사목의 열매이며,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해외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는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선교사들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이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10월 전교의 달에 본당

강론에서 신자분들과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어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마을 안에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정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미소, 격려하는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은 단지 사목 지침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부르심’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희망의 순례자’로서, 서로를 이끌고, 배우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자는 초대입니다. 교회는 결코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며, 그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며, 주님의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그분의 포도밭은 더욱 넓어지고,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

바라 딴 무바릭 호!

우르두어 성탄 인사

بڑہ دن مبارک ہو

김진욱 사도 요한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8년 입회하여 서울 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필리핀에서 수련기를 보냈으며, 마닐라 예수회 신학교에서 수학했다. 2024년 첫 서약 후, 그해 여름 파키스탄으로 첫 선교 발령을 받고, 현재 하이드로바드 교구의 신드주 바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선교사의 삶을 희망하는가? 사제의 삶을 희망하는가? 골롬반의 삶을 희망하는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 과천미사에서 들은 이 세 질문은 제 여정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와서 겪은 두 사건이 이 질문을 깊게 새겨 주었고, 저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첫째 사건은 경찰 조사였습니다. 최근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 때문에 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가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농약이 남아 있던 채소를 먹고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을 때입니다. 낯선 땅에서 무력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깨끗한 물조차 구하지 못해 병으로 고통받는 이곳 사람들의 처지가 생생히 다가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 즉 연약함과 취약성을 다시 보게 되면서, 제 시선은 자연스레 아기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필자가 활동하는 바딘 지역의 본당에서
교리교사와 골롬반 선교사들과 함께



필자가 활동하는 바딘 지역의 성 토마스 본당 앞에서



파키스탄 골롬반회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식탁

오신 그분은 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용기와 희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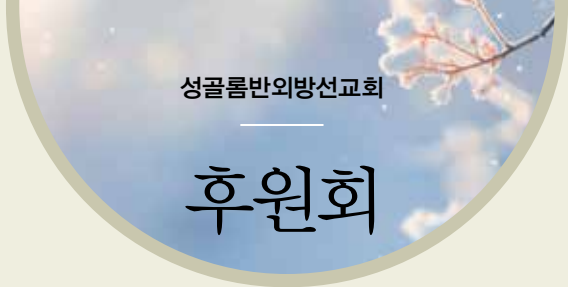
파키스탄에 와서 1년은 언어를 배웠습니다. 우르두어는 존중과 예의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 문법은 익숙했는데, 듣기와 말하기의 벽은 높았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긴장,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압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다뤄 보려 했습니다. 말을 막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꾸준함과 작은 진전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모르면 되묻고, 만나는 이들과 인사 나누며 작은 성취를 누렸습니다. 머리(Murree) 지역에서 말 공부를 마칠 즈음, 성당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거리를 걸으며 대화한 기억은 소중합니다. 서툰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웃으며 문장을 이어준 아이들 덕분에 자신감과 설렘이 생겼습니다. 언어는 완벽함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건네는 손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음식 또한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본 적 없는 김치

를 담그고, 김밥과 잡채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김밥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게 뭐야?” 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신기해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내 수고를 알아줄까?’ 하는 인정 욕구가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된 기회였습니다. 웃음 가득한 공동체 식탁에서 분명히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가끔은 제 마음 안에 마르타 같은 불평이 얼굴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저는 요리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 실천의 방식임을 배웠습니다.

성탄은 언제나 작은 시작으로 큰 희망을 엮는다. 서툰 우르두어 인사, 시장에서 나눈 소박한 미소, 공동체 식탁의 웃음 같은 작은 순간순간이 제게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 공부를 마치고 사목 실습으로 나아가며, 유창함보다 진심, 속도보다 동행, 계획보다 경청을 선택하면서 희망의 순례자로 한 걸음씩 내딛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올 때 가지고 온 세 가지 질문을 늘 새기면서요.

이 길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한국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반이 제 연약함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희망의 순례길을 걸어 주시길 청합니다. ✠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매년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에 문의하기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s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jfund@columban.or.kr

주소 변경, 중단 등 간단한 업무는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 가능하며, 카카오톡채널, 홈페이지 1:1 문의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지로 안내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신청해 주세요.

서울 후원회 모임 안내

매월 마지막 금요일 2시~4시

12월 26일(금)

강의 필리핀 선교 나눔 | 지광규 대철베드로 신부
미사 민 디오니시오 신부(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미사)

2026년 1월 30일(금)

강의 미얀마 선교 나눔 |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미사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대만 파견미사)

2월 27일(금)

강의 사순 특강 “죽음 마주하기 I” |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미사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부

3월 27일(금)

강의 사순 특강 “죽음 마주하기 II” |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미사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부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후원회 가입
온라인 신청



후원회 카카오톡채널



1:1 문의



후원회 월례미사

25년 12월 -
26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5일	2일	-	6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6일	30일	27일	27일	돈암동 본부	02-929-2977
인천	9일	13일	10일	10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0일	-	11일	11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2일	9일	13일	13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6일	23일	27일	27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27일	24일	24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8일	25일	25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29일	26일	26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30일	27일	27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1일	-	-	12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	21일	25일	18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20일	-	17일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	24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지역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석 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본부) 매월 2시: 영성 강의, 3시 10분: 미사

26년 2월~3월은 사순 특강(왼쪽 안내)이 있습니다.

•서울(명동) 2월 미사 없습니다.

•광주 후원회 12월 미사 없습니다.

•원주 후원회 1월 미사 없습니다.

•제주 후원회 12월 용두암 사제관과 서귀포 성당 미사 없습니다.

2월 미사는 설 연휴로 한 주 미뤄집니다.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로반외방선교회

사제수품 희년 맞은 사제들, 선교 25주년인 평신도선교사들과 함께한 성 골롬반 축일

11월 24일, 서울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지부장 권세오 곤잘로 신부 주례로 골롬반의 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올해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제서품 희년을 맞은 세 사제와 선교 25주년과 동시에 골롬반 선교사로서 은퇴하는 두 평신도선교사를 위한 감사 미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금경축인 오기백 다니엘 신부는 강론에서 골롬반 성인의 말 “자신과 다른 삶이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를 언급하며, “이 말을 선교사로 살면서 체험하였

고,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여정 안에서 함께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두 평신도선교사에게 펼쳐진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안광훈 로벨도 신부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생으로 1965년 7월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한국에 와서 원주교구 사직동·정선, 서울대교구 목동, 미아·삼양동·금호1가 선교본당에서 활동했습니다. 강원도 시절부터 정선 실험 설립 등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이 자립하고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 사목 초청기부터 함께하였고 삼양동주민연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특별히 재개발과 철거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데 청춘을 바쳤습니다. 아산상 대상 등 한국 사회는 안광훈 신부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고, 정부는 2020년 특별 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지부 초대 신학원장, 부지부장, 재정 담당으로도 봉사했습니다.



오기백 다니엘 신부



아일랜드 코크 출생이며, 1975년 3월 아일랜드에서 사제서품식을 하였습니다. 1976년 광주대교구 흑산도 본당을 시작으로, 목포 연동, 수원교구 성남 상대원 본당에서 사목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인 1980년대에 인천교구 부천에서 노동사목, 1990년대에는 서울대교구 봉천9동에서 도시빈민사목 등을 하며 힘없는 이들의 존엄과 인권 옹호를 위해 투신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지부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다섯 차례 지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선교 홍보 및 교육 등을 하였고, 현재 신학원장을 겸하면서 역사실 활동, 선교사 파견 교육과 귀국 선교사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올해의 이민자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양창우 요셉 신부



2000년 6월 29일 대구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 생활을 한 후 한국지부로 발령받아 성소국장 및 지원사제 담당, 신학생 영성의 해 담당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6년 동안 한국지부 신학원장으로서 사제 양성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 후원회를 맡았고, 2022년부터 한국지부 부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원장을 겸하며 피정지도, 성령기도회 등 기도와 치유가 필요한 이들의 영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16~19쪽



이경자 크리스티나 평신도선교사



전주 출신 첫 골롬반 선교사입니다. 2000년에 파견돼 첫 선교지 필리핀에서 11년 동안 봉사하였고, 한국지부 평신도 선교사 코디네이터를 지냈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 아일랜드로 파견되어 이주민과 난민을 동반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가난, 여러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타국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기댈 이웃, 친구로서 함께했습니다. 관련 글: 10~11쪽



손선영 카타리나 평신도선교사



2000년에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8년 동안 선교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지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로서 평신도들을 골롬반 선교로 초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어 페루로 파견돼 리마 외곽 지역에서 일한 후, 미얀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모 지역에서 선교 중에 중앙 평신도선교사 참사로 선출되어 3년 동안 홍콩에서 일하였습니다.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으나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 미얀마 북부 미치나 지역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글: 12~13쪽

인천교구 해외선교사의 날, 권세오 신부와 김종근 신부 선교 나눔

10월 18일,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교구 <제16차 해외선교사의 날>에 본회 선교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칠레 출신 권세오 신부가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주제로 자신의 성소 이야기, 한국에서 선교하며 겪은 은총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권세오 신부는 신학생 때 첫 선교 파견을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그동안 이주민과 난민, 청년, 장애인들을 동반해 왔습니다. 2부에서는 본회 김종근 도밍고 신부가 “한국 교회와 남미 교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칠레 선교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강원교회사연구소 심포지엄, 골롬반회 활동과 사회적 성과 조명

강원교회사연구소(소장 신정호 신부)가 9월 28일, 춘천교구 효자동성당에서 ‘문서를 통해 본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1930~1950년대 전라남도도와 강원도에서의 본회 활동을 조명하였습니다. 발제자 주영일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는 “골롬반회가 일제강점기 추방과 감금, 전쟁 중 희생을 겪었지만, 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돌보고 종교·신분 차별 없이 공정한 분배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였고, 본당과 공소 확장, 레지오를 비롯한 신심 단체 활동, 사회 사목, 성직자 양성 등 단지 교세 회복을 넘어, 지역 사회 재건과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인선 연구자(강원대학교)는 “골롬반 선교사들이 구축한 병원과 학교 등은 지역 사회의 신앙·교육·의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 수 증가, 사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서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밑받침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롬반 소식

후원회 연례 무료 피정

올해 가을에도 후원회원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10월 셋째 주간, 목포·전주·광주에서 “기도의 역사와 흐름”에 대하여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피정을 이끌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루카 19,9)를 주제로 피정을 하였습니다(사진). 오전 강의는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오후 강의는 권태문 신부가 맡았으며, 양창우 요셉 신부가 병자들을 위한 치유와 축복의 미사를 주례하였습니다. 무료 피정 소식 등 후원회 모임 안내를 본지 후원회 페이지와 홈페이지, SNS에 안내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장 신부 방한 및 지부 총회 개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장 안드레이 파스(Andrei Paz) 신부가 10월 18일, 2주간 일정으로 방한하였습니다. 총장은 각 지역에서 사목하는 골롬반 선교사와 만났고, 실무자들과 면담, 후원회 미사, 한국지부 총회(사진) 참석을 하였으며,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필리핀 출신인 안드레이 파스 신부는 2024년 6월,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본회 총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관련 글: 4-7쪽



김종근 신부 칠레 선교 33년 마치고 귀국, 감사미사 봉헌

남미 칠레에서 33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온 김종근 도밍고 신부가 11월 1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종근 신부는 신학생 시절 칠레에 처음 파견되었고, 사제품을 받은 후에 다시 칠레로 발령받아 수도 산티아고 외곽의 도시빈민-남부 마푸체 원주민-북부 사막 지역 도시빈민, 이주민과 함께했습니다. 방한 일정 중이던 본회 총장 안드레이 파스 신부는 이 미사에서 “도밍고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선교사의 삶은 선교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랜 선교 경험과 배움, 얻은 것이 한국에서 사목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과 힘을 이곳에 불어넣어 줄 선물을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모든 골롬반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도밍고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발돋움 하시길 신부님께서 언제나 기쁘고 건강하게 은총 속에서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축하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사랑하는 칠레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근 신부는 미사를 통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어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33년 동안 기도로써 선교 여정을 동반해 온 본회 회원, 가족, 친구와 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호 한국인 골롬반 사제와 작년에 서품을 받은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부가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골롬반 소식

박상호 신부와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서울 본부 방문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대전교구 박상호 라파엘 신부가 11월 10일, 서울 본부를 찾았습니다. 지부장 권세오 신부는 손님들을 환영하며 우리 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을 기획한 박상호 신부는 본회 지원사제로 페루에서 6년 동안 선교한 골롬반회 가족이기도 합니다. 현재 신학생들에게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본부 성당에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골롬반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기도를 이끌었고, 신학생들에게 해외선교에 참여하는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부제품을 앞둔 이 신학생들에게 이번 방문이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나데릭(데릭 해리스Derek Harris) 신부 선종



나데릭 신부가 9월 22일(현지 날짜), 아일랜드에서 선종하였습니다. 향년 88세. 고인은 춘천교구, 원주교구, 인천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1986년부터 10년간 LA에서 한인 교포사목을 하는 등 30년 넘게 한국인과 동고동락한 선교사입니다. 매우 자유롭고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러한 태도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만나며 오늘날의 선교를 실천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충실했던 사제 나데릭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 1937년 6월 25일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 1961년 12월 21일 사제수품
- 1962년 한국 도착
- 춘천교구 춘천 소양로·주교좌죽림동·철원 김화·춘천 효자동·홍천 양덕원, 인천교구 부천 심곡에서 본당사목
- 아일랜드와 호주에서 본회 선교 교육 및 홍보
- LA 한인 교포사목
- 아일랜드 더블린교구 협력 사제
- 2025년 9월 22일 선종, 달간파크 안장

열린미사에 초대합니다!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열린미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만남을 통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고 선교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열린 시간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열린미사는 20일(토)에 있으며, 선교 체험 나눔은 손선영 카타리나 평신도선교사, 미사는 오기백 다니엘 신부가 주례합니다. 이 미사는 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문의 선교센터 02-953-0613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한국지부 SNS 안내

- www.facebook.com/columbankorea
-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 https://www.youtube.com/@stcolumbankorea_1918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검색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퀘존 시에 위치한 성골롬반회 국제신학원 공동체다.
왼쪽부터 신학생 라니, 골롬반, 매튜, 주방직원 틴틴, 부원장 지광규 대철베드로 신부, 신학원장 맥스웰 핀바 신부,
신학생 모세세, 앙리, 도미니카다. 여러 나라 출신 골롬반회 신학생들이 양성을 받고 있는 이곳은
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역동성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공동체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 젊은이

문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vocation@columban.or.kr

**사제 성소
문의**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nameire@gmail.com
(해외선교를 희망하는 교구/수도회 사제 대상)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